

시스템·데이터·현상으로 보는 '시대현상'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오늘 개막...문화전당서 열흘간

알고리즘 매개 사회 특성 분석·해결책 모색
7개국 61명 작가 37점 작품...포럼 등 다채

근대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정보의 편중이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감옥의 탄생'에서 규율사회가 지닌 암울한 합리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정보는 누구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유동적 성격을 지니게 됐다. 중앙의 감시구조가 점차 느슨해지면서 효율적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사전적 정의의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일컫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절대성을 일컫는다. 그러나 조정과 통제보다 대중들에게 많이 이관됐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체계는 데이터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알고리즘을 매개로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28일(12월 7일까지) 개막을 시작으로 열흘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과 미디어월에서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신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7개국 8개 도시 61명 작가가 참여한다. 본 전시에서 모두 37점이 출품돼 현대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알고리즘'을 모티브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 작품의 콘셉트는 '시스템', '데이터', '현상'이라는 층위에 있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토대로 데이터가 가동되면 특정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데 특징이 있다. 먼저, 전시장 중앙에는 김병호 작가의 '아름다운 반사'가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이번 주제인 '알고리즘 소사이어티'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미디어가 수행하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 수반되는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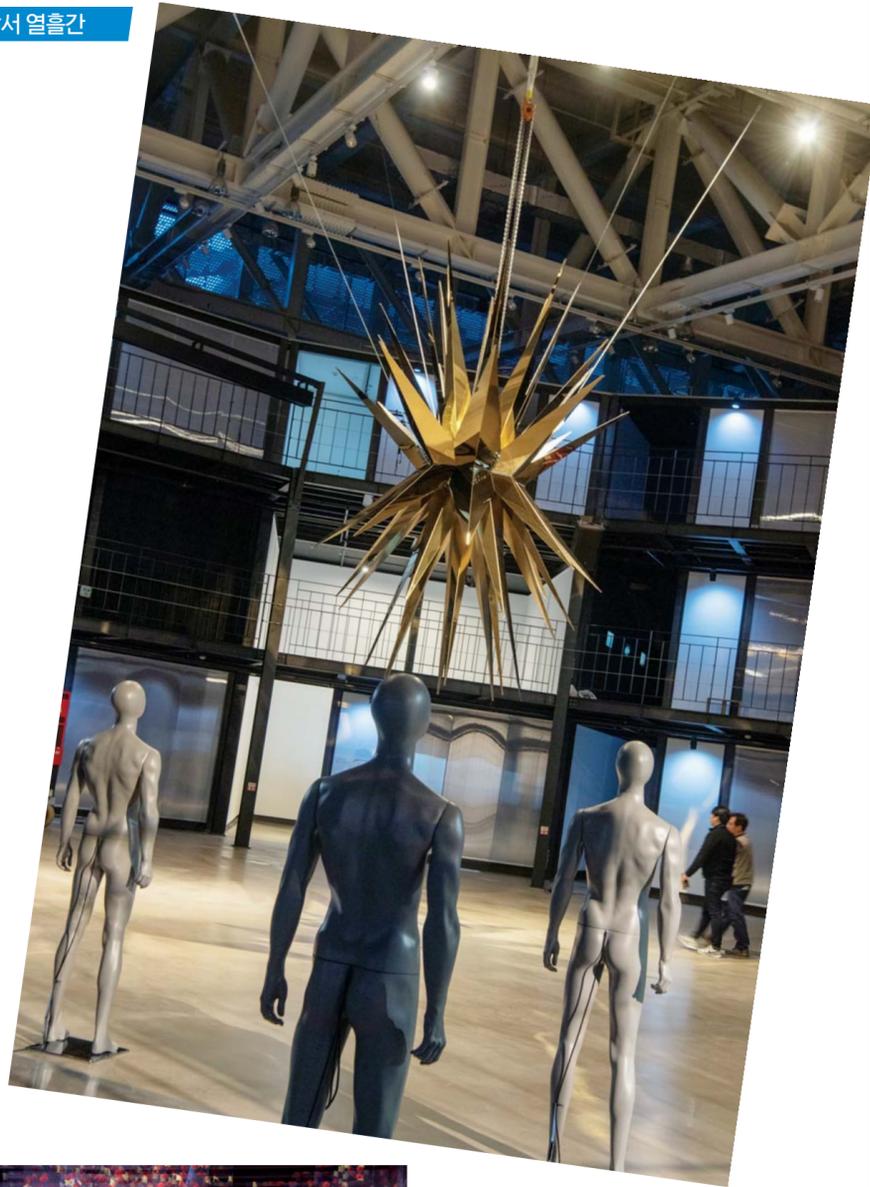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아 눈에 띈다. 지역성을 토대로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를 독창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광주 출신 작가 정정주의 '응시의 도시-전일빌딩'은 광주의 역사적 건물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정작가는 "건물 모형 안에 카메라를 넣어두고 안에서 바깥쪽을 투사하는 작품"이라며 "그 시선은 제가 경험했던 상황과 공간에 대한 기억과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작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5·18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한다. 당시 공백상태의 도심의 공간과 전일빌딩을 카메라의 시선으로 담아낸 것. "5·18을 모티브로 '응시의 도시'라는 시리즈를 해오고 있다"는 그는 카메라를 통해 '응시'의 의미를 구현한다. 이번 전시가 끝나고 내년쯤에 지금의 도심 건물들과 전일빌딩을 매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AoT(김성룡, 유성훈, 성용희, 유소영, 파모즈)의 '그날의 떨림'은 지진 데이터를 매개로 광주의 역동성을 담은 작품이다. 80년 5월 많은 사람들이 금남로에 모였기 때문에 진동이 있었을 거라는 전제가 작품으로 이어졌다.

"작품 구현을 위해 5·18민중화운동기록관으로부터 5·18 관련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당시 역동성이 지금의 민중화 의식이나 열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명하지는 의도하지요. 또한 얼마 전부터 기록관 입구에 지진 진동계를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작품은, 이곳을 오가는 이들의 진동 데이터에 의해 선풍으로 만든 흉상(독재자)이 녹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김병호 작 '아름다운 반사'
◀박상희 작 '무등산 판타지'

성용희 작가는 또한 "5·18 당시뿐 아니라 작품에도 독재자의 표상이 많은데, 진동이라는 역동성에 의해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산을 데이터로 변환한 박상희 작가의 '무등 판타

지아' 등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본 전시 기간에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도 열려 향후 정책 방향도 가능할 수 있다. 29일 오전 10시 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도미니콜랑(프랑스 앙기렘레베 CDA대표),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등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페스티벌 개막식은 오는 30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2관에서 전시 주제와 연관된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예고 한국화 동문 '예맥회'의 선율

오늘~내달 30일 문예회관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 전공 동문으로 구성된 '예맥회'가 28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예회관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그룹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미술단체 공모전'에 뽑혀 마련된 그룹전이다.

지난 1997년 창립, 올해 21주년을 맞은 예맥회(회장 조양희)는 20대의 신진작가부터 50대 중견작가들로 폭넓게 구성돼 있으며 광주 및 서울-경기-충청 등 전국 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리와 선율을 그림에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악,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의 아름다운 소리와 움직임을 회화로 표현한 전시작을 만날 수 있다. 아름다운 산조 가락은 붉은색 꽃이 핀 매화나무, 암석과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첼로를 켜는 연주자의 얼굴엔 환희가 가득하다.

예술고 출신인 예맥회 회원들은 미술 분야 뿐 아니라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활동을 몸소 체험하고 공유했던 예술



김하슬 작 '악사의 연주법'

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공존하는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강일호·김여진·김종경·김주현·김하슬·명현철·박창수·박홍수·이규은·이영실·최미연·홍지희 등 36명의 예맥회 회원이 참여했다. 관람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30분.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



스크린으로 만나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광주문화재단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00명 무료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작은 스크린(SAC on Screen) 기획으로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사진)을 상연한다.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상연회에서는 지난 2013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른 국립발레단의 공연을 선보인다.

러시아 불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

었던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 버전으로 국립발레단이 2000년 처음 선보인 이래 매년 매년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어린이 무용수가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해 가족 관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2막 '눈송이 왈츠'에 합창을 넣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다채롭게 감상하고 중국과 러시아 춤 요소를 넣어 볼거리를 더했다. 선착순 100명 무료. 예약 062-670-79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IPALG 초등학교 맞춤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